농촌체험관광으로 부자마을 됐어요

고흥 포두면 섬마을 상오리
바다·갯벌 '체험관광' 운영
9개월만에 3000여명 찾아

가난한 바닷가 마을이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고흥군 고흥읍에서 동남쪽으로 20km 떨어진 포두면 상오리는 '별나로 마을'로 불린다.

상오마을은 다도해를 감싸 안은 듯한 형태를 한 거북이 모양의 섬마을로 다랭이 밭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마을 오른쪽으로는 해창만 간척지 조성으로 대규모 농지와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이 펼쳐져 있는 60대가 주를 이루는 59세대·주민 142명이 사는 바닷가 작은 마을이다.

상오마을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농어촌 관광사업을 도입, 부자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농촌체험마을을 개소, 6월 현재까지 3000여명이 방문해 5000여만원의 마을수입을 올렸다.

이러한 마을변화의 중심에는 송종근(46·어촌계장)'별나로마을' 추진위원장이 있다.

송씨는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고 지난 2006년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농촌체험관광'교육을 받으며 천혜 자연환경을 이용해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고흥군과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심양면 교육과 지도에 나서 힘을 보탰다.

이후 송씨는 이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되고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 기틀을 다지게 됐다. 현재 25농가가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참여해 '별나라, 바다, 나루터'를 여행 컨셉으로 광활한 바다와 갯벌을 활용한 풍부한 체험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했다.

독립된 공간인 10평·20평형 펜션 6동을 비롯해 마을주민집을 리모델링한 민박집 3동이 세워졌으며 타 마을과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운영,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횃불을 들고 낙지를 잡는 전통 어업체험인 '불모리' 프로그램〈사진〉과 모터보트를 타고 다도해를 도는 선상체험을 비롯해 ▲유자청 만들기 ▲바지락채취 ▲실뱀장어 잡기 등 다채롭다. 바지락을 주재료로 해 묽게 쑨 죽과 비슷한 음식인 '바지락 직갱이'와 '피굴' 역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력요소이다.

송종근 어촌계장은 "초창기에는 마을 어르신들 반대가 심하고 욕도 먹었지만 지금은 '일등마을 만들어보자'고 하신다"며 "앞으로는 향우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byeollaro.go2vil.org).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광양 도선선차 브랜드화 컨설팅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광양시 차연구회(회장 문광연)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도선선차(禪茶) 브랜드화 컨설팅을 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녹비작물 재배 기술과 발효차 제다법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청매실 서울서 인기 폭발

송파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대성황

광양시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과 풍납 2동 주민센터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번 직거래 판촉행사에서는 친환경 농특산물인 생매실과 매실 가공제품·섬진강 재첩국·고로쇠된장·건고사리 등이 판매됐다.

청매실은 당초 2t 물량을 준비했으나 호응도가 높아 3t을 추가 공수하는 등 이틀간 5t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광양특산물 유통사업연합회와 매실 생산농가 등이 참여해 광양산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고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직거래장터 참여 업체와 품목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 및 판매에 나서 도시민의 호평을 받았다.

장터를 찾은 시민들은"다양한 매실제품과 광양지역특산물을 믿고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았다" 면서 "이런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6월초 서울 삼전동과 풍납2동 주민 80명을 초청해 봉강면 신촌마을과 옥룡면 양산 테마마을에서 김치담그기와 블루베리 재배단지 견학·옷감 물들이기를 체험하고 청매실 농원 등을 방문했다.

장태기 광양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광양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홍보를 위해 대도시의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연계를 구축해 판촉활동 및 도·농교류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박람회 중국서 관심 폭발

상하이 관광설명회 현지 여행사·언론 호응

여수시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는 한국관광광사 상하이지사와 공동으로 최근 상하이시 소재 리츠칼튼호텔에서 상하이관광협회·현지 여행사·여행기자 등 중국 현지 관광·여행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관광설명회에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많은 여행사·언론인 등이 참가해 여수관광 및 2012 엑스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여수시 홍보단은 상하이 박람회와 여수박람회를 통한 상호 교류와 함께 크루즈관광 등 여수방문을 요청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여수시는 이번 관광설명회에서 중국어로 제작된 여수관광 프리젠테이션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동영상 상영·오찬간담회 등을 통해 여수의 관광자원과 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노철 여수시 관광과장은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중국·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일환으로 일본 후쿠오카 등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관광설명회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2 세계박람회에 대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4~25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10 아시아 크루즈 컨벤션'에 참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관광 홍보전을 전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순천만 정원박람회 EI 디자인 확정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인 EI(Event Identity)의 기본 디자인〈사진〉이 확정됐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정원박람회 EI 개발 사업에 착수, 2월 주제어·부제어 선정에 이어 3월 콜네임(애칭)을 선정했고, 이번에 기본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EI 기본디자인은 콜네임(애칭)을 기초로 글자들을 크레파스로 그린 느낌으로 표현해 '에코지오'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친근하고 정감있게 전달하고, 'O'위의 흑두루미는 정원박람회 주제인 '지구의 정원 순천만'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순천시는 이번 확정한 콜네임과 기본 디자인에 대해 상표 출원을 마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응용 디자인과 마스코트 개발 및 EI 매뉴얼 제작을 마치고 홍보기념품 제작 등 정원박람회 홍보에 다각적으로 활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해경 피서철 여객선 특별 안전점검

여수해양경찰(서장 강평길)은 해양사고 예방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전남 동부 해상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유·도선 80여척과 선착장 등 시설물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여수해경을 비롯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합동점검반은 ▲장비 관리실태 ▲긴급 구난 통신망 운용 실태 ▲구명설비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양시 개발 제한지역 확대

37만㎡ 연장…의암·신금 29만㎡ 추가 지정

광양시가 안정적 택지공급과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의암지구 65만1500㎡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37만6076㎡에 대해 제한기간을 2010년 8월 19일에서 2012년 8월 19일까지 연장하고, 의암마을과 신금 일반산단 잔여지역 등 29만9724㎡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신금 일반산단 및 포스코 후판공장 등 건설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 택지공급과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옥곡면 신금리와 광영동 일원 의암지구 65만1500㎡에 대한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의암지구는 당초 시가화 예정용지 및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41만 6000㎡에 대해서만 조사설계 등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는 신금 일반산단등 개발에 따른 의암마을(179세대 495명)의 집단민원을 수용해 지난 2월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의암마을과 신금 일반산단 잔여지역 23만5500㎡를 추가로 편입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기간연장 고시된 이후부터는 옥곡면 신금리와 광영동 일원 67만5800㎡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식재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법적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2015년까지 3974세대 1만7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